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인상

- 원유 : 3.02 \$ / B → 3.64 \$ / B
- LPG : 93 \$ / T로 불변

정부는 석유수입시 부과되는 석유사업기금을 배럴당 3.02달러에서 3.64달러로 62센트를 상향조정, 지난 11월 17일부터 적용기로 했다. LPG(액화석유가스)는 톤당 93달러로 변동이 없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10월 16일 최근의 노사분규로 인한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시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내油價를 11.01%(공장도가격기준)인 하조정하는 한편, 석유사업기금을 배럴당 3.84달러에서 3.02달러로 82센트 인하하고, 10월 21일자로 판매세도 24.5%에서 10%로 하향조정한다 있다.

그러나 국내油價인하 이후 환율이 계속 하락(1달러당 809.0→802.6원) 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중 국내도입원유가격도 9월의 배럴당 17.65달러보다 26센트 떨어진 17.39달러로 집계됨에 따라 기금조정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원유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국내유가와와의 차이를 계속 기금조정으로 대처하여 나갈 방침이다.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조정내역

1. 조정원칙

원유도입단가 하락 및 환율하락에 따른 油價조정요인을 전액 基金조정으로 흡수.

2. 조정기준

○原油도입단가 : 17.39 \$ / B (10월 내수도입실적FOB)

- 환율 : 802.6원 / \$ (87. 11. 10 현재환율)
- 관세 : 불변(10%)
- 부대비용 : 原油單價 하락에 따른 부대비 하락분 반영
- 금융비 : 原油단가하락에 따른 금융비 하락 반영
- 87. 10. 2~11. 10間 假精算益(59億원) 반영
 - 原油도입단가 하락에 따른 판매이익(52億원)
 - 국제나프타가격 連動益(7億원)

3. 조정요인

	변화폭	기금조정소요
○原油가격 하락	-0.26 \$ / B (17.65→17.39)	+0.28 \$ / B
○부대비하락등	-0.02 \$ / B (4.47→4.45)	+0.02 \$ / B
○환율하락	-7.0원 / \$ (809.6→802.6)	+0.26 \$ / B
○금융비하락	-12원 / B (445→433원 / B)	+0.02 \$ / B
○假精算益 반영 (87. 10. 2~11. 10)	-33원 / B (59億원)	+0.04 \$ / B
조정요인		+0.62 \$ / B (3.02→3.64 \$ / B)

4. 조 치

1987. 11. 17. 부터 石油事業基金을 0.62 \$ / B 증액징수
- 原油 : 3.02 → 3.64 \$ / B

5. 국제原油가격 추이

(單位: \$ / B)

	1985末	1986. 3末	1987. 1末	3月末	8月末	10月末	11. 10
W T I	26.35	10.45	18.80	18.85	19.65	19.95	19.00
브렌트	26.40	10.30	18.40	18.45	18.50	18.85	18.10
아라비안라이트	27.78	15.60	18.20	17.98	17.25	18.05	17.34
두바이	26.15	10.50	17.15	17.00	17.15	17.10	16.70
국내평균도입가	26.65	(18.34)	(14.62)	(16.83)	(17.59)	(17.39)	

註:()는 국내油價반영 FOB.

세계 증권시장 붕괴와 석유산업

최근 세계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했던 주가폭락사태는 세계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석유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현금이 풍부한 석유회사들은 주가하락에 편승하여 자사주식을 구매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회사합병을 통하여 석유매장량을 값싸게 구매할 기회를 맞게 되었다. 특히 소규모 석유사들의 계속된 주가하락은 지분획득을 통한 인수용 용이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석유회사들의 주가가 작년 유가폭락시 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최근 증권폭락으로 지분획득을 통한 매장량확보는 보다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부 Major들의 매장량 가치는 금년 2/4분기 \$5.63/bbl에서 이번 증권시장 붕괴로 \$1~2/bbl정도 하락하여 \$4~5/bbl로 평가된다고 한 PIW지(10. 26)의 지적은 이런 점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증권시장 붕괴가 석유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하나는 주가하락으로 모든 대·소 석유회사들의 자금조달능력이 심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직접금융)이 어려워짐은 물론 이로 인한 자본증가의 제약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간접금융) 역시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권시장의 붕괴로 석유사들의 자금조달 능력이 약화되면, 이것은 유가추이와는 별도로 석유탐사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 BP 민영화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듯이 각국의 석유정책 수행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새로운 시각에서의 사업검토가 필요해질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폭락은 석유선물시장의 거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유선물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의 상당부분이 Wall Street 투자자라는 사실에서 석유선물시장에의 영향은 분명해진다.

이번 주가폭락사태에서도 이러한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의 손실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선물시장에서 long position을 청산한 것이 유가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PIW의 지적은 이런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증권시장 붕괴의 기본요인을 실물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측면의 팽창으로 본다면, 금융적 성격이 강한 선물시장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